

G20 정상들 “코로나 치료제 적정가 공평 보급”

선언문 채택...“광범위 접종 따른 면역 세계 공공재” 문 대통령 제안 ‘인력이동 원활화 조치 모색’ 포함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공평하게 보급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G20 정상들은 21~22일 이틀간 화상회의 형태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최와대가 23일 새벽 배포한 선언문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전무후무한 충격이라고 규정하고, 취약한 계층의 지원 및 경제 회복 등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진단기기, 치료제 및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적정가격에 공평하게 보급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접종에 따른 면역이 전 세계적인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또 정상들은 “사회 전반에 코로나19 영향이 나타나는 모든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지원할 것”이라며 “각국 국민의 생명과 일자리, 소득을 보호하고 세계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시스템 회복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계속해서 활용할 것

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G20은 저소득국의 채무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원리금 상환유예이니셔티브(DSSI)를 내년 6월까지 이어간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또 다자무역 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고, 포용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G20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도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필수인력의 국경이동 원활화’는 지난 3월 G20 화상 특별정상회의의 당시 문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이후 각국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 노력도 선언문에 담았다.
정상들은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

제라는 점에 의견을 모으는 동시에 지구를 보호하고 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각국의 상황에 따라 가장 넓은 범위의 연료와 기술선택을 활용하는 것을 비롯해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효율성, 환경, 안전성을 실현하는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선언문에 포함됐다.
특히 파리기후협약 중요성을 상기하고,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중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G20은 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인류의 회복력과 전 세계 단합의 상징으로 2021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일본의 결정을 평가하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개최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앞두고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찾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개각 동향 촉각... ‘의원 입각’ 거론

‘부동산 논란’ 국토부장관 조기 교체 여부 주목

조만간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원 입각’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개혁과제의 추진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보다는 정치인이 중용돼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23일 “인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일부 의원들이 개각 동향에 관심을 두는 것은 사실”이라며 “업무 차원에서 보면 정국회에서는 예산과 공수처법 등이 처리된 후 개각이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선 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 시장 불안정으로 들쭉날쭉한 민심을 추스르면서 개혁의 고삐를 당기기 위해 정부감

각과 추진력을 갖춘 중진급 정치인을 기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5년 임기를 마무리할 시점이 아니라, 새로운 봉우리로 간다는 관점에서는 정치인 출신이 열정과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 입각론’을 거론했다.
교체 대상으로 떠오른 국무위원 자리를 놓고 이미 하마평이 무성하다. 언급되는 의원들은 손사래를 치면서도 내심 촉각을 곤두세우는 표정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으로는 남인순의원이 거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바뀔 경우 조정식 의원이 가능성이 있다

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호중 전철철 의원의 교차 후보군이라는 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장관에 노동계 출신 한재영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임으로 국회 문화위원장 출신인 안민석, 기자 출신인 노은래 의원이 기용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유임이 유력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거취에도 여전히 관심이 모아진다. 연말 연초 2차 개각 때 바뀔 거라면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감안해 1차 개각 대상에 포함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다.
이와 맞물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조정식의 의원 등 중장급 있는 인사의 기용 필요성이 대두된다.
민주당 한 의원은 “국토장관에 대한 견해가 여러 채널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본인 의향도 그렇지만, 이제 바뀌줄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예산 국회 막바지 ‘3차 재난지원금’ 쟁점

소위 1차 감액심사 완료...오늘부터 증액심사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막바지 증액심사에 들어간다. 감액심사의 삭감액 안팎에서 세부사업별 예산을 증액하는 단계로, 국회 예산심사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돌발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지난 16일부터 가동한 예산소위는 23일 부처별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했다. 소위는 정부안 대비 약 8,500억원 규모의 감액을 확정했다.
예산소위는 24일부터 정성호 예결위원장·박홍근 여당 간사·추경호 여당 간사·정부 측이 참여한 협상을 통해 정밀 조정에 착수한다. 본격적인 여야의 ‘예산

전쟁’이 시작된다는 의미다.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21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야당은 최소 50%를 감액해야 한다고 버리고 있다. 정부의 정책홍보예산,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의 감액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칼질’로 여윌 돈을 확보하면, 각 상임위에서 12조원 규모로 추가된 증액 예산을 들여다본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해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민생에 더 많은 예산을 잡아야 하고, 그에 걸맞은 감액이 선행돼야 한다”고, 박홍근

의원은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3차 대유행 피해와 관련 예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봐야 한다”고 각각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국채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 예산에 같이 넣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쪽지예산’, ‘밀실심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소소위’가 올해도 반복된다는 지적에 여야는 “올해는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최종적으로 예산소위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1회독 뒤 감액심사는 재논의를 해도 평평한 입장 차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다수가 참여해 의견을 좁히는 조정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차별성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공수처법, 절차 따라 처리”

이낙연, 화상 최고위 참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공정·정의·미래 등을 위한 입법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마무리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괴물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이라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 “막말”이라며 “야당의 집요한 방해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 이 대표는 “동남권 신공항의 거대 인프라가 인구 840만명의 동남권 메가시티와 결합하면 국가균형발전 촉진, 동남권 활성화가 될 것”이라며 “야당 의원의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 대표의 자가격리로 화상으로 열렸다. /연합뉴스

아울러 “대구 신공항특별법, 광주 신공항이전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 처리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집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는 화상으로 최고위에 참여했다. /연합뉴스

기술성, 경제성, 안정성이 우수한 하수처리시설공법
환경엔지니어링 전문업체입니다.

INNOBIZ
기술혁신성장중소기업

하수처리시설공법, 중수도시설, 건설환경분야 선진국 사례 검증된 기술로
맑고 깨끗한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 - 한성이앤씨(주)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 기계설비 공사업 | 수질환경전문 공사업

HAN SUNG ENVIRONMENTAL CONSTRUCTION | 한성이앤씨 주식회사

본사 전남 담양군 대전면 나곡길 84 TEL. 061_381-1811
광주사무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로 26 TEL. 062_416-1819